# 청정교단-재가상 정립 '길찾기'

##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 28일 창립

## 40여단체 참여…재가불자 결집 '과제'

## 환경 윤리회복 지역공동체 운동 전개

조계종사태로 연대했던 단체들이 불교바로세우기 범불교재가연대(재가연대)를 공식 창립하고 '청정교단만들기'에 나선다.

23일 오전11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재가연대(창립준비위원장 서돈각)는 27일 오후6시부터는 '출가정신과 재가연대'를 주제로 창립기념 심포지엄도 준비하고 있다. 〈본지 214호 23면 기사 참조〉

현재 재가연대에는 우리는선우 전국교사불자연합회 한마음선원신도회 등 40여 단체와 김종서(前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민병천(서경대총장) 정천구(영산대총장) 이근후(이화여대의대) 강건기(전북불교대학장)교수 등 60여명의 창립준비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교계에서는 모처럼 재가불자들의 힘을 하나로 모을 재가연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재가연대가 재가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는 '길찾기'를 담보해내는 것만이 재가불자의 역량을 모을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다.

창립의 단초는 조계종 사태로 인해 아프게 출발했지만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진지한 성찰과 모색으로 이어진다면 앞으로의 거취에 따라 재가연대의 성과와 입지는 확고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종단과의 긴밀한 관계도 중요하지만 확고한 방침을 밀고 나아가는 추진성을 얼마만큼 견지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가연대의 창립 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내용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청정교단 만들기. '사찰재정 및 운영의 투명화' '중앙종무기관 운용공개' '종회발전 재가봉사단 구성'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원력을 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급승용차 안타기' '도박·은처승 퇴출운동' '신도법 개정' 등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둘째는 바람직한 재가상 만들기. 지계실천 캠페인, 자자포살, 발우공양 등 생활문화캠페인, 수행결사 프로그램 만들기, 권리찾기 책임다하기 등의 재가불자 신행혁신운동을 벌여 나간다는 것이다. 재가자들이 단체를 민주적이고 투명화된 방식으로 운영하여 '청정교단'의 내적 동력이 되도록 지속적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세번째는 폭력반대운동. 조계종 사태에서 보여줬듯 힘에 의한 갈등의 해결방식을 반대하고 앞으로 어떤 폭력도 정당화 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재가연대는 폭력을 지계차원에서 대중적 참회운동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재가연대는 참여정신에 입각한 대중공의에 의해서 운영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자정과 자립의 역량을 갖춘 '청정교단'을 성취하겠다는 서원이다.

또 불교적 가르침과 신념에 일치하는 시민사회의 윤리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선도하는 재가불자상을 확립하여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인 환경운동, 평화운동, 윤리회복운동, 지역공동체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참여회향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 KCRP 29일 '세기말 종교현상' 세미나

# 세기말 편승 '종말론' 확산

## 종교계 공동 대처방안 모색

기상이변 등 재난에 대한 불안증후군, 환경 및 생태계 오염, Y2K문제(컴퓨터의 2000년 인식 오류), 예측 불가능한 경제상황 등 불길한 징조들이 종말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92년 우리사회를 불안케 했던 '휴거'에 이어 당시 휴거론을 더욱 정교화한 '급박 종말론'이 등장하고 있다. 미국 등 교포사회에까지 조직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는 종교학자의 진단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회장 고산 조계종총무원장)가 29일 오후2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세기말적 종교 현상-어떻게 볼 것이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사회적 병리현상인 종말론을 비롯 반사회적 종교현상을 다각적으로 분석, 치유책을 찾는다는 취지이다. 이같은 주제에 대해 각 종교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댄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날 세미나는 '종교적 광신과 시민사회 윤리'(길희성 서강대교수·종교학) '폐쇄적 신앙집단의 사회적 분석'(김종서 서울대교수·종교학) '시한부 종말론의 사회심리학적 조명'(이훈구 연세대교수·심리학) '시한부 종말론의 신학적 조명'(김명용 장신대교수·신학)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김종서교수는 미리 배포한 요약문을 통해 "92년 휴거를 주장했던 시한부종말론자들이 당시에는 신앙부족으로 휴거가 불발됐으며 이제 '진짜 종말과 휴거가 임박했다'고 주장하는 '급박종말론'이 최근 등장하고 있다"며 "이들 폐쇄적 사교(邪敎)집단은 정교화된 전도방식으로 소수정예화한 '틈새종교'의 현상을 띤다"고 지적했다. 또 김교수는 "종말론은 특정종교의 교리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에 만연된 현상이며, 세계 전체에 나타나는 총체적인 현상"이라며 종교계는 물론 사회각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훈구교수는 종말론에 심취하게 되는 사회심리학적 분석을 통해 "국내 종말론지도자들은 자기 사업목적으로 종말론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들 종말론지도자는 극적인 방법을 동원해 신자들을 도박판과 같은 상황으로 몰아넣어 집단자살극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또 "입시지옥에 시달려 스트레스가 많고 지적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올해 종말론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특히 높다"며 학교·직장·사회단체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세미나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대비책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길희성교수는 "세기말적인 종교현상을 치유키 위해서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과 가치의 존중, 타인의 자유와 인권의 존중, 사회전체의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시민사회윤리의 정립, 효(孝) 인(仁) 예(禮) 등 전통가치관의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하는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 등 관계자와 종교학자들은 건전한 종교환경 조성을 위한 참된 종교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KCRP는 토론내용을 토대로 종교정책 제안서를 작성해 문화관광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 천태종 운덕스님 종단협 이사회 참석

## 고산스님 덕담건네자 웃음으로 화답

## 봉축행사-불교도 금강산 순례 등 논의

# 종단협 4년만에 화합 기류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고산스님 체제를 맞으며 지난 4년여 동안 불편했던 관계를 씻어내고 화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16일 열린 종단협의회(종단협, 회장 고산 조계종총무원장) 이사회에 운덕스님(종단협부회장, 천태종총무원장)이 참석해 고산스님과 자리를 나란히 했다. 오랜 갈등이 풀리는 날이었다. 운덕스님의 종단협 공식석상 참석은 1년여만의 일이다. 지난 해 5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열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 참석 이후 처음이다.

고산스님은 회장 인사말에서 "봄에 새싹이 돋듯이 종단협도 새롭게 출발하자"고 말했다. 의례적인 인사말이었지만 그 이상의 뜻을 담은 인사였다. 그동안 종단협이 겪어온 갈등을 씻어내자는 당부였으며, 바로 왼쪽에 앉은 운덕스님을 반기는 인사였다.

이날 회의에서 고산스님은 운덕스님에게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고산스님은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천태종이 조계종보다 장엄물을 더 잘 만든다"며 좌중의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 분담금 부분에서도 "관문사에 가보니 대단하더라. 원장스님에게 맡기겠다"며 책정된 분담금 5백만원 이상의 부담을 자연스럽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운덕스님은 웃음으로만 화답했으나 결코 싫지 않은 표정이었다.

이에 앞서 고산스님은 13일 운덕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서울 우면동 관문사를 방문했다. 두 원장의 만남은 그동안 종단협 운영을 놓고 갈등이 있었던 중의 만남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고산스님의 방문은 관문사 견학이 목적이었지만, 종단협 운영에 대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고산스님이 "서로 화합해서 종단협의회를 잘 이끌자"고 말을 꺼냈다. 이에 대해 운덕스님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배석자들이 전했다.

종단협은 94년 월주스님이 회장으로 취임한 직후 정관을 개정해 조계종총무원 부장스님들을 이사로 편입시키자, 몇 종단이 '조계종 독주'라는 불만을 나타내며 화합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급기야 20여개 종단이 '종단진흥회'라는 별도의 친목모임을 결성하기에 이르렀으며, 97년 부처님오신날 제등행진에는 10여개 종단이 불참하는 등 갈등양상을 빚었다.

고산스님은 종단협 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즉각 수습에 나섰다. 1월 12일 열린 종단협 신년교례회에서 고산스님은 "소문에 조계종에 불만이 있어 종단협에서 나간 종단이 있다고 들었다. 앞으로는 화합해서 한 덩어리가 되자"고 강조했다. 직접어법으로 불협화음을 해소하자고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16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는 금강산 순례와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등을 논의했다. 종단협의회는 6월 2일에서 5일까지 불교계 각 종단 지도급 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민족의 화합과 나눔을 위한 불교도 금강산 순례'에서 선상 프로그램으로 음악회와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조선불교도연맹과 현대측과 협의해 신계사터에서 약식법회를 봉행하는 것 등을 추진키로 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는 예년처럼 종단협 주최, 조계종 주관으로 연등축제, 봉축법요식, 시청 앞 점등식 등을 주요행사로 치르기로 했다. 특히 제등행진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등과 각종 장엄물을 다양화해 볼거리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보생명과의 불교인단체보장보험 계약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7월 예술의전당 KBS 등과 함께 '간다라 불교미술대전'을 공동 주최하기로 했다.

종단협의회 회장 고산스님은 이날 사무총장 남정스님(총화종 총무원장)이 사의를 밝힘에 따라 홍파스님(관음종 총무원장)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종단협 이사회에 나란히 자리한 고산스님(오른쪽)과 운덕스님이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맨 왼쪽은 진각종 성초 통리원장.

## 소쩍새마을에 '자비의 등'을 밝힙시다

조계종 사회복지 법인 승가원이 운영하는 원주 치악산 소쩍새마을. 이곳은 누구도 돌보지 않는 부랑자와 장애인, 무의탁 노인들 3백여명의 보금자리입니다. 소쩍새마을은 현재 강원도 횡성에 새로운 보금자리 승가원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소쩍새들의 보금자리 건설불사는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어 불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손길이 더욱 필요합니다.

올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본사는 승가원과 함께 소쩍새마을에 자비의 등 밝히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소쩍새마을에 자비의 등 하나를 밝혀 동체대비의 무량 복전을 일구시기 바랍니다.

△동참비: 1인1등 1만원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복지법인 승가원 (02)928-0750
△접수내용: 성명 주소 생년월일(음 양)
영가등도 접수 받습니다.
△접수기간: 3월3일~5월 21일
△입금계좌
- 한빛은행 059-170968-13-001
- 외환은행 142-22-01704-2
- 국민은행 093-01-0293-459
- 우 체 국 011809-0332390
- 농 협 063-01-19213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승가원 소속 스님 13분이 축원해 드립니다.

경

학교법인승가학원 제4대 이사장 취임 및
중앙승가대학교 제2대 총장 취임법회

축

이사장 오 고 산 큰스님
총 장 박 현 성 스 님

일 시 : 불기 2543('99)년 3월 24일(수요일) 오전 11시
장 소 : 중앙승가대학교 정진관 대강당

학교법인 승가학원 중앙승가대학교 취임준비위원회

연락처 : ☎(02)926-4377, 925-5508~9 FAX (02)921-9721, 928-4302